



# 근교화훼농업의 현황 및 전망과 방제시 문제점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장 김 득 래

서울 근교의 화훼 농업은 단적으로 말해서 영세성(零細性)을 면치 못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화훼 농가들은 차지농 형태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기 때문에 질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저질의 값이 싼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한 하우스에서도 재배온도 환

경이 다른 것을 소위 만물상(萬物商)식의 많은 종류의 꽃을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의 발생이 많고 방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하우스 시설개선, 토양 소독기, 환경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보다 근대화된 하우스에서 양질의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1. 화훼재배 현황 및 전망

서울근교 화훼재배 현황 및 판매

특성을 보면 여러가지 형태의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재배단지가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주재배 지대가 뚜렷하게 나

타나 있는데 주재배 지대를 보면 우면·서초동을 중심으로한 양재동 지역, 현인능을 중심으로한 주변지역, 방이동·잠실동을 중심으로한 잠실 지역, 상일·하일동을 중심으로한 주변지역, 발산·개화동을 중심으로한 강서지역, 구파발·진관동을 중심으로한 지역등 대략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재배면적을 보면 110.7ha로 전국의 8.9%를 점하고 재배호수는 약 837호로 전국대비 27.1%를 나타내어 서울부근의 화훼재배는 전국적으로 볼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꽃재배 형태를 보면 서울근교에서는 열대 관엽의 소품인 페페로니아·크로톤·아나나스류·야자류·고무나무·필로렌드론·디펜바키아·마란타·네페로네피스·군자란·선인장류·기타 등은 직접 재배 농가에서 번식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관·화목류나 소철류·대형야자류·기타 비교적 키가 큰 종류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주로 경남, 전남북) 싼값에 구입, 분에 심어 단기간 수익을 올리는 특이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셋째, 1,2년 초화류인 금잔화·팬지·인파렌스·꽃베고니아·페추니아·사루비아·일일초 기타 등은 전 지역에서 일부 농가가 골고루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해에 따라서 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 어느 때에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유통구조의 불완전으로 인한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시설을 잘 만들어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고급품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넷째, 기타 절화류인 국화·장마구근류의 절화는 안양, 인천 및 부평에서 많이 재배 생산하여 판매하며

다섯째, 판매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꽃을 판매하고 있으나 주 판매시장인 남대문 대도시장·강남꽃시장·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등 정규적인 시장이 있지만 좀 특이한 시장인 서초동 꽃거리 시장은 서울의 명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노변시장의 거리가 2km에 달하고 있어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 시장의 주요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생산물의 판매가 용이하고
- ② 대단위 판매시장 형성으로 직판장 기능을 수행하고
- ③ 각 종류의 꽃을 다량확보하여 시민 기호에 부응하고 있으며
- ④ 기술 및 유통정보의 교환으로 생산 판매에 원활을 기하고
- ⑤ 전국적 유통판매 기능과 정보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특이한 점을 가지

고 있는데 82년과 금년의 경우를 보면 서초동이나 우면동 지역에서 관엽식물을 추력으로 전남 광주, 대구, 부산 석대등 판매장에 출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 중요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① 도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시한적인 '영농으로 장기투자가 곤란하여 시설의 부실로 인한 저급품이 생산되며

② 생산 및 판매조직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이다.

### 가. 다양한 형태로 재배돼

국내 경기회복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꽃의 수요는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삭막한 아파트에서 한그루의 꽃이라도 가꾸어 환경을 부드럽고 정서적인 가정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물의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섬말나리, 하늘나리 등 기타 우리나라 자생화를 개발 증식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재배농가의 살길이다.

그러나 '86 아세안게임, '88 올림픽은 꽃의 고급화와 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나. 올림픽이 기폭제 될듯

꽃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꽃

이나 잎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재배의 핵심이다. 그러나 재배하다 보면 병충해가 문제가 되어 값비싼 관엽식물을 하루밤 사이에 망쳐 버리는 수가 허다하다.

아름다움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할려면 병충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병해충과 방제대책

재배환경이 나쁜 시설에서 관엽식물이나 꽃을 재배하면 고온다습 상태로 옷자라서 연약한 상태가 되어 병해의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조건 하에서 길러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최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관엽식물은 다른 초화에 비하여 병해가 적은 식물이다.

### 가. 주요 병해 대책

#### ① 검은점무늬병(黑斑病)

이 병해는 장미·고무나무류·야자류·소철 등에 잘 생기는 것으로서 주로 잎에 발생이 많다. 처음에 푸른잎에 흑색, 다갈색의 반점이 나타나며 그것이 점차 커지므로 차례차례로 전염되어서 생육을 해치고 나중에는 잎이 떨어진다. 처음 병해

를 발견했을 때 그 잎을 따서 태워 버리거나 마네브수화제 500배액이나 4-4식 보르도액을 살포한다.

이병에 걸렸을 때는 병균이 흙에 떨어지므로 물주기를 할 때 세계 물을 뿌리면 흙이 튀어서 병균이 잎에 묻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② 탄저병(炭疽病)

이병은 크로튼 등 관엽류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잎에 작고 둥근 담황색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점차 회백색으로 변하여 바깥쪽에 보라색 테가 생긴다. 방제방법은 마네브수화제 500배액을 산포한다. 그리고 통풍이 나쁜 곳에 두었을 때나 질소비료를 과다 시비했을 때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 ③ 흰곰팡이병(白絹病)

주로 페페로니아·장미 등의 뿌리에 생기는 병으로서 처음 지제부(줄기나 뿌리가 흙의 상부와 접하는 부분)에 흰곰팡이가 붙고 그것이 다갈색으로 변하여 점차 잎이 누렇게 되어 점점 시들다가 마침내 말라 죽고 만다.

방제법은 췌나진 수화제를 1,500배액으로 희석하여 1주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이병의 예방을 위

하여 살균제를 월 1회 살포하면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습기가 너무 많을 때라든가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우므로 물을 줄때는 많이 주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 ④ 흰가루병(白粉病)

식물의 성장점 또는 꽃봉오리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병은 아프리카바이오텍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오판수화제 1,500배액이나 사프를유제 800배액을 주면 좋다.

### 나. 주요 충해 대책

관엽식물의 해충은 잎이나 줄기를 식해(食害)하여 피해를 주는 것과 구관(口管)을 잎이나 줄기에 꽂아 넣고 양분을 빨아내어 말라 죽이는 등 두 가지가 있다.

#### ① 진딧물

부드러운 새순에 붙어서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을 약화시킨다.

1년내내 발생하고 특히 봄·가을에 걸쳐 따듯할 때 많이 발생한다. 방제방법은 메타유제스나 피리모수화제를 1,000배액으로 1주일에 1회 정도 뿌려준다.

그러나 뿌리는 기구가 없을 때는 입체인 침투성 약제인 카보, 아시트 입제 등을 1주당 2g 정도를 포기

◇ 근교 화훼 농업의 현황 및 전망과 방제시 문제점 ◇

주위에 뿌려주고 물을 주어 식물이 보독(保毒)하도록 하여 진딧물이 즙액을 흡수하면 죽이는 방법이 있다.

② 응애류

거미의 일종으로서 붉고 작은 벌레이다. 건조하면 잎에 많이 발생하여 푸른잎을 회색 하고 있다. 이 벌레는 물에 약하므로 매일 잎에 물을 뿌리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방제법으로는 아크리짓, 디코폴 1,000배액, 벤지란 1,000배액 등을 벌레가 발생하는 7~9월에 7~10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기타 시기에는 월 1회 정도 살포하여 발생을 막도록 한다.

③ 개각충(介殼虫 깍지벌레)

해충중에서도 제일 귀찮은 해충으로 종류가 많다. 몸은 납질로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약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 벌레는 어떠한 관엽식물이나 불옴프로 일단 불으면 식물의 줄기나 잎은 흰솜털을 덮어 쓴 것처럼 된다.

방제법으로는 수프라사이드, 모폭스, 디메토유제 1,000배액을 살포한다.

④ 달팽이

낮에는 화분의 바닥 등에 숨어 있

다가 밤이 되면 나타난다. 이들 해충은 새순이나 부드러운 잎을 먹어 버려서 관상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

방제에는 디설피온제를 화분 주위에 뿌려주면 좋다.

⑤ 개미, 지렁이

화분속에 들어가서 흙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뿌리가 흙에서 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말라 죽게 된다.

3. 방제시 어려운 점

방제시 가장 어려운 점은 재배환경 불량으로 농약을 살포해도 병충해를 즉시 방제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재배농가의 기술수준 미흡으로 병충해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농약 선택이 어렵고 약용량을 정확히 제량하지 않아 약을 많이 넣어 피해를 보는 수가 있고 적게 넣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같은 농약의 연용으로 말미암아 내성이 생겨 효과가 없게 만드는 것 등 오류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병충해의 방제는 화훼농가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